새해와 하나님이름 사용설명서

(시편 91:1~16)

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2.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4.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5.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새해와 하나님이름 사용설명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새해와 하나님이름 사용설명서'

지난 해 12월 31일 저녁부터 강릉의 바닷가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동쪽 바다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릉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평소 2시간 반이면 되는 거리가 4시간 5시간씩 지체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이글거리며 올라오는 새빨간 해를 마음으로 흠뻑 받아들이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월 3일입니다만 오늘이 지나기 전에 새해 아침에 빌었던 모든 소원들을 다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소원은 근원적으로 불신앙이고, 이것이 반복되는 한 불행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원은 희망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루어지는 도피 행각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도망가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원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소원은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만족하고 기쁘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고 열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복음적 믿음은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민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기쁨과 만족에 대한 믿음 자체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그 많은 대상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하고, 건강을 믿어서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자녀의 취직이나 결혼을 소망하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합니다. 좋겠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곧 만족과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계시하시며 우리의 만족과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으로 믿는 돈을 가져다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믿음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돈이나 건강 혹은 자녀의 형통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원을 가질 때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을 갖는 것은 세상의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불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이하면 수강신청을 합니다. 수강신청이 끝나면 꼭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뒤따라옵니다. 수강 신청했던 것을 취소하기도 하고 새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가 새해 소원신청 변경기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모든 소원을 다 취소하고 한 가지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름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재벌이 되거나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족들의 세상적인 형통 또한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형통과는 무관하게 여러분이 복지를 살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이름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에 대해서는 '내 사전에는 이 세상을 향한 소원 따위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이름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본 시는 지은이나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종류의 환란과 어려움을 깊이 체험한 시인이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포괄하는 핵심내용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신학은 곧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고 논의입니다. 이 신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존자와 전능자입니다. 이 두 이름을 삶에 적용하면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곧 '지존자와 전능자'라는 하나님의 두 이름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두 이름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바람을 가지지 않고도 완벽한 복지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열립니다. 우리가 지존자와 전능자라는 말의 의미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존자'라는 말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이고 '전능자'라는 말은 '불가능이 없으신 최고 권능의 소유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실제 예를 들어봅니다.
시편을 시작하기 전에 삼각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각관계에는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며 내 육체를 포함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역은 내 육신과 접하는 환경과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각관계에서 내 마음과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이라는 꼭짓점에는 다양한 대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관계에 놓이게 되면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믿음이 작동됩니다. 마음은 공백을 채우기 위해 24시간 흡입력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 믿음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즉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상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과 하나님 중에서 무엇을 믿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걱정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즉 최고의 가치를 뜻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관계에서의 위치입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채우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 최고인 존재가 지존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각관계에서 이 지존자의 이름으로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지에 대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원죄의 체질로 인해 자동적으로 세상을 추구하려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존자의 이름을 제시하십니다.

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업이 안 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비는 소원이 으레 적자를 안 보고 흑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하는 이유는 사업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거짓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넣어준 속임수가 나에게까지 유전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믿음을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합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고 나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에 대한 믿음을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대학입학을 소원하고 혹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이런 믿음은 속임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귀가 속이는 대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의 뒷면에는 지방대에 가면 불행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지방대를 감으로서 아이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나의 믿음은 모두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죽여야만 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소원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을 설득해서 계약을 맺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계약이 성사되어야 기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든 말든 기뻐할 이유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존자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되시고 최고의 가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십자가를 붙잡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각관계 안에서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세상을 믿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때에 세상에 대한 믿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쁨을 캘 수 있는 광산이 결코 존재하질 않습니다.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광산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9절에서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맞추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기쁨을 캐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이 땅에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 결코 이 땅에서는 기쁨과 만족의 근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근심걱정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이 기쁨과 만족을 주리라 믿는 믿음은 또한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존자의 이름을 인정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나의 믿음을 십자가에서 순간순간 죽여야 합니다.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내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천만 불짜리 계약이 성사되어서 기뻐하더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 여러분이 망하게 된다면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계약이 성사됨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막으셨다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막으신 것입니다. 계약자체가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속고 있음을 알고 지존자이신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이 되심을 믿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최고의 가치이심을 인정했다면 이들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삼각관계 안에서 나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묶이게 됩니다. 이 때에 남아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을 제시하시는데 바로 전능자라는 이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봅니다. 삼각관계 안에서 궁극적인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제시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나의 믿음이 십자가에서 죽고 지존자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남은 세상에 대해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자 세상에 대해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천적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의 전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고백이지만 우리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이 제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 되어 세상 부분이 남겨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 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사업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사업에서 기쁨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얻고자 할 때에 사업에 대해서는 바람과 소원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사업의 흥망을 판단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판단력과 사고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나와 우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관계하시도록 나는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나의 모든 능력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이 내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돈 사업 자녀 배우자 등의 대상들 앞에서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임하실텐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사고력 판단력 추진력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 이외는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 이름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20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다’라는 말은 삼각관계 안에서 세상이라는 꼭짓점의 대상인 귀신들린 사람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를 제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

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심은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지존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려는 체질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의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삼일 길을 가는 동안 물이 없자 불평하였습니다. 열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전능자 하나님으로 기뻐했기 때문에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사용설명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지존자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포함하여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얼핏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해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라고 하나님 이름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지존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 채 전능자 하나님만을 찾는다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전능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며 기뻐하라고 하심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은 하늘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는 마음에서 돈을 지존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형통이나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가져다 줄 전능자를 기다릴 때에,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과 지존자 하나님 두 이름을 모두 놓치고야 맙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한 근심걱정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죽여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작동할 때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마귀가 준 체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쁨과 만족을 캐낼 어떠한 광산도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볼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늘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고, 그 아버지께 마음을 보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모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라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가야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있고 없음은 나의 기쁨과 만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지존자로 대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땅에서의 나의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늘에 계신 지존자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삶이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원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소원 밑에 깔려 있는 믿음을 죽이면 소원은 없어지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새해에는 지존자와 전능자라는 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그 이름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